

1인 가구 절반은 12평 이하에 산다

한국 1인 가구 절반은 12평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가운데 77%는 연소득이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8일 '연합뉴스'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인 664만3천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였던 셈으로,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령별로는 20대(19.1%)가 가장 많았고, 30대(16.8%)가 뒤를 이었다. 이와 50대(15.6%),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가 혼자 생활한 평균 기간은 9년 11개월로 집계됐다. 20대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산 기간이 3년 미만인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나, 50세 이상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혼자 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는 학업·직장(24.4%)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 1인 가구 절반은 12평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싶어서(16.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 절반(50.5%)은 40㎡(12.1평) 이하의 주거 면적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44.0%), 아파트(32.0%), 연립·다세대 주택(11.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다만 1인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8가구(83.7%) 이상은 본인의 주거 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총인구 첫 감소...50년 동안 1천400만 명 더 준다

한국의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2070년에는 인구가 1천400만명 이상 감소한 3천700만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라 비관적인 예상도 함께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천175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천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천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올해는 그 시작일 뿐 인구,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은 앞으로 점차 심화한다. 통계청은 2030년 인구는 5천120만명, 2040년은 5천19만명으로 감소세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2050년엔 4천736만명, 2060년엔 4천262만명, 2070년엔 3천766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50년간 1천418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라 가정하에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9주째 둔화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9주 연속 둔화됐다.

9일 '경향신문'이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2월 첫째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한 주 동안 0.13%,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이는 직전주보다 각각 0.01%포인트씩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0.17%→0.15%)와 인천(0.22%→0.17%) 모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9주째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급등한 동두천은 이번주 0.01%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셋째주(0.17%)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다 0.10% 올라 직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유지됐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나 고가단지는 상승하는 등 지역·가격별로 장세가 차별화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방은 0.13%를 기록해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세종은 지난주 0.26% 하락한 데 이어 이번주 0.33%로 하락폭을 키웠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대구도 직전주 0.03% 하락에 이어 0.02% 떨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0.12%→0.1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0.10%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방(0.12%→0.1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